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봄철의 황사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세 먼지는 물체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 먼지는 기관지염이나 폐렴, 결막염 등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영유아의 면역력이나 인지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